2011년 신년 인터넷 사경회, 팔복

제3복, 온유한 자의 복, 땅 기업

(마 5:5)

오늘 아침도 8복을 계속해서 세 번째 복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될 복, 땅의 기업.

여러분!

8복은 완전히 새로운 복이에요. 새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기복적인 뉘앙스가 있다 해서 꺼리고 이러잖아요. 그럴 것 없이 <새해에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복이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복을 거부할 필요가 없지요.

기복적인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은 헌 복에 매달릴 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하도 좋아하시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 새 복을 8복으로 5복도 아니고 8복으로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뭣 때문에 굳이 그렇게 헌 복 5복에 매달려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5복을 이깁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새해에는 헌 복을 이기는 새해가 됩시다!!

어떻게? 새 복 받아서.

자, 세 번째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아쉬운 것은 앞에서 제1복과 제2복과 마찬가지로 연구서들이나 주석서들을 보면 온유한 자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게 될 복 자체 정작 복의 내용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뭐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을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많은 연구서들이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을 말하였을 것이고, 신약적인 맥락으로 갖고 와서 땅을 이해하자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메튜 헨리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삶과 연관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기독교가 갖게 되는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주도적인 입장, 문화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온유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과 같은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에덴과 같은 기쁨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느냐 하면 이상할 정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에서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으로 받는다, 상속한다는 뜻을 심지어는 표준어 성경 같은 데

서는 아예 다 그 의미를 없애버리고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클레로노모스(klhronovmo", 2818: 상속자)에서 유래된 이 klhronomevw(2816, 클레로노메오)는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복수형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땅을 차지한다. 전혀 아니지요. 이거는 성경을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일 텐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귀절을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터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유산으로 받는다, 상속한다 라는 뜻을 살릴 때 도대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복 중의 복이 뭐에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렇죠? 헌 복 5복 중에. 그래 뭐 손으로 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위에 사람이 누굽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사람이 누구에요? 그 재물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애써서 일군 그 모든 재물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자기 명의로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복 중에 복이지요. 재물을 모으는 게 뛰는 복이라면 이건 나는 복이에요.

제가 오래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아니꼬와서 못살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집안이 부자에요. 재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재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거고 관점이 있으므로 또 가치관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그 아들의 행동과 생각이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자식아. 내 재산 절대 상속 안 해줘. 그 따위로 살면. 고쳐!" 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유산상속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사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벌었으면 나는 왜 못 버느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 때려치우고 내가 자수성가하겠다." 이런 말을 화가 나가지고 막 뱉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화가 날만큼. 아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할 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서라 아서. 아버지가 일군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의 만분의 일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도 그보다 더한 굴욕과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다 감수하면서 사는 게 세상이다. 어디 철딱서니 없이 그 정도를 가지고. 나 같으면 정말 아버지 엉덩이라도 핥아 드리겠다. 굴러온 복을 발로 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되게 부럽던데요. 저는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그 귀절은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 보다 더 저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속받는다 라는 이 단어 클레로노메오(klhronomevw) 이 말이 복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다 라는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서 유산을 받는 겁니다. 상속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땅이라 그래갖고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유산을 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속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지금 천국을 갖고 오신 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지불하지 않을 만큼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상황에서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 안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 내려온 천국을 천국의 식민지쯤으로 생각하세요.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며 보좌를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천국의 식민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천국의 식민지 안에서 땅을 상속받으며 사는 것이 제 세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상속이 되어야 돼요.

이 상속됨을 알기 위해서 새 복에서 제 세 번째 복 땅을 상속받는 것을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세상의 상속을 함께 이야기 해봐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기 좋게, 정주영씨가 현대그룹을 일굽니다. 그리고 정몽준씨에게 물려줍니다. 이건희씨가 삼성을 일구어서 이건희씨에게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본문대로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일을 일구셔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과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일구어서 내 명의로 넘겨주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땅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상속받는다는 단어가 더 핵심적이라 이겁니다. 상속받는다는 단어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상속을 받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과 똑같은 것은 아버지가 일구어서 내 명의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구어서 내 명의로 해주시고, 이병철 아버지가 일구어서 이건희 아들에게 이건희씨의 명의로 해주셨고, 정

주영 아버지가 정몽준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이 헌 복의 주인공들과 새 복의 주인공인 나의 상속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업을 일구고 재물을 일구어 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상속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명의로 넘겨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할 때처럼 내 명의로 넘겨주시는데 내 하늘 아버지하나님은 돌아가시지를 않은 채 내 명의로 넘겨 주십니다.

요게 바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새 복과 헌 복의 차이가…

헌 복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명의로 상속이 되고, 새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서 내 명의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이병철씨가 바닥에서부터 막 일구어내십니다. 정주영씨가 일구어 내십니다. 이때 이건희씨나 정몽준씨는 아이였어요. 또 엘지의 구인회씨가 막 일구어낼 때 구본무씨는 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때 아버지가 일구어놓으시고 성인이 되면 상속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지금 행하셔서 내 명의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행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뭐냐 하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러냐면 “빌립아 빌립아. 네가 나하고 삼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네가 나의 모든 일을 다 봐놓고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얘기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닙니까? 이병철씨가 하신 것처럼 정주영씨가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가 하신 건데 그런데 전부 예수님 명의로 돌려집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병철씨에게 물려받은 이건희씨가 내가 사업을 하게 된 출발점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 모든 게 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하는 거라고 알고 있구나. 내 명의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게 바로 상속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사전들을 다 찾아보면 말입니다. 모세 하면 전부 모세의 명의 아래 출애굽의 대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죽음의 땅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지점까지 영도한 인도자로 나옵니다. 전부 모세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정말 기적을 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그런데 정작 모세가 한 것은 뭐냐 하면 팔십 할아버지가 되어서 지팡이 들고 바로 왕 앞에 서 있던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력이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사십 년을 인도해주셨어요. 모세가 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모세의 명의로 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명의 아래 그 출애굽의 대역사와 사십 년 광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일구어서 자식에게 상속시켜 주듯이 나의 아버지로서 일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하신 일들을 내 명의로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고 행동하시면서 행동하셔서 나타난 결과를 곧바로 내 명의로 넘겨 주셔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한 줄로 안다 이겁니다.

명의가 뭐에요? 명의로 해놓으면 그 사람 것인줄 알아요.

실지로는 내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내 아들 명의로 해놨다 합시다. 법정에 갖고 가잖아요? 그럼 서류대로 아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명의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행하시는데…

이게 바로 새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희씨는 이병철씨를 아버지로 두셔서 삼성을 물려 받았습니다. 정몽준씨는 정주영씨를 아버지로 두셔서 현대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힘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았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유산 상속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병철씨가 일군 걸 받아도 복 중의 복인데, 정주영씨가 일군 걸 받아도 복 중의 복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구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지금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재벌에 밝혀지지 않았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재산을 상속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유전인자를 검사해갖고 정말 친자확인이 되어갖고 난데없이 유산을 받게 될 경우에 아! 대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1년에는 이병철씨의 자식으로서, 정주영씨의 자식으로서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숨겨져 있다 나타났다가 대박을 받는 것처럼 2011년은 그런 헌 복이 아니라 새 복으로 대박 터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일구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온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벌의 2세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됩니다. 경영의 천재가 되어야 돼요. 경영의 천재들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 하나쯤 졸업을 못하면 연수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비 리그가 아니면 MIT나 스텐포드 대학은 나와야 돼요. 정 안 되면 버클리 대학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 누가 하나님을 견주겠습니까? 정주영씨가 견주겠습니까, 이병철씨가 견주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삶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일구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일구신 것을 상속받는 데는 MIT공대가 필요없고 경영학 석사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MBA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온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 온유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40살이고 50살이고 60살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맨바닥에서 애를 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됐잖아요. 지금 하나도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건희씨나 정몽준씨는 지금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재벌 재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애 쓴거에 백분의 일 만분의 일만 고생하면 돼요. 뭐냐하면 온유하면 돼요. 온유하면.. 온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아, 자식 키우느라고 애쓰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의 백분의 일만의 노력으로도 온유 못하겠어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외유내강 그리고 의치, 의설. 의치 의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치아는 딱딱한데도 다 빠져서 남의 이빨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의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혀는 부드럽지만 맨날 이빨에 물리고 씹히고 터지고 피가 나고 당하는 거 같아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의치 끼었다는 사

람은 보지만 의설 끼었다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게 결국 승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온유가 도덕적인 정말 기림을 받아 마땅한 덕목인데 그 훌륭한 덕목을 수행했으니까 이제 상을 주겠다.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덕목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립된 채로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외유내강한 자가 좋더라. 그래서 양은 이리에게 잡혀먹혀도 이 지구상의 양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온유하지 못한 늑대의 숫자 이리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곧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둘의 직선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온유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온순함 인격적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온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필요합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해봐요. 이병철씨가 바닥에서 시작하실 때 이건희씨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병철씨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판단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부잣집 외아들 제가 지도하던 청년 아이. 아버지와 갈등이 생겨요. 성숙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지요.

어린아이 시절에 일구어놓으신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성인이 된 지금, 성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기준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나쁘고, 그러한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고 저건 일어나면 안 되고 라는 판단들이 생겨났다 이거에요. 소원이 생기고 가치판단 기준이 생기고 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바램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기 위해서 도움이 되면 모르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옭아매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해나가시는 일을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따라서 찔러대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뻣뻣한 상태가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두 수 세 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다볼 수는 있지만 맞지를 않지요. 아무리 내다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맨날 조르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뭘 그렇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좋아요? 아! 참... 답답한 얘기에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돈이 없어서 외국 유학도 못 보내고 멋진 차도 못 사줬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이 외국 유학 보내고 멋진 차를 사줬어요. 아우토반에서 익스프레스 웨이라고 그러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서 죽었어요. 돈이 있고 유학을 보내고 차를 사주는 게 좋은 겁니까?

차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증 선 사람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차 살려고 했던 돈까지 다 밀어 넣었어야 됐어요. 차를 못 사줬어요.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는 두수 세수를 못 내다봐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백수 천수 만수를 내다보고 계시고 나의 영원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촘촘히 일

초도 빈 순간 없이 침 꿀꺽 삼키는 순간도 잊어버리심이 없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대로 한번 일구어보시려고 하시는데 그거 뭐 도무지 왜 그렇게 생선뼈처럼 뼈가 많고 왜 그렇게 마음이 뻣뻣합니까?

뻣뻣한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7편 11절에서 인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37편을 들여다보면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그랬어요.

왜 분이 납니까? 왜 노가 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와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데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뭔가 기업을 일구시고 이 땅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뭔가를 일구세요. 자식의 관계건 부부의 관계건 아니면 혼자 살면 혼자 사는대로 자기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벌써 딱딱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을 좋은 것을 일구셔서 내게 내 명의로 넘겨주시려고 해도 뼈가 많아서 내 소원이 많아서 내 기준이 많아서 아예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온유하다라는 게 뭐라구요?

하나님께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모셔 들이기 위해서 보들보들 따

끈따끈, 따끈따끈해야 보들보들하잖아요. 식으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는 사전적인 온유, 도덕적인 의미에서 온유, 인격적 덕목으로서의 온유로서 이해해가지고는 본문하고는 아주 어긋납니다.

이 본문의 이 온유는 하나님만을 향한 저항감 제로의 마음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온유의 정의로 주님이 포착이 되십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는 율법 앞에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진짜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온유 맞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온유하심 겸손하심 맞아요.

그런데 성전에 채찍을 들고 다 뒤집어엎을 때는 이 세상의 그 누가 과격한 모습을 연출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난 사람은 팔십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십니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온유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일구시는 중에 성전을 정하하시기도 하시고, 간음한 여자를 따뜻하게 보듬기도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도 하시고, 세리들을 끌어안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무리 납득이 안 가고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내 기준으론 아무리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기준을 다 까부수고 내 바램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를 통째로 받아들이시는 온유함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구시는 기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롭고 자비스럽

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리타분이 이를 때없이 답답하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지요.

예를 들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 있느냐? 난 진짜 모세 감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행진했고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있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부지런히 가면 2주면 갑니다. 그 거리를 지금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는 중인데 어떠냐 하면요 민수기 9자에 보면 「그 구름이 이틀이건 한 달이건 일 년이건 머물러 있으면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답답해서 제 가슴을 쥐어뜯고 싶어요. 2주면 갈 거릴 가나안 땅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사막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일년 동안이나 안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일년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보에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을 제시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가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일거다. 부지런히 가자. 이랬을 거 같애요.

일년을, 일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거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도 할 일 없이 광야에서 있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년이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도대체 우리의 이해력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얼마든지 천수 백수를 내다보시고 행하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뼈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과 내 마음에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뼈 소원들 가치판단들 이것들을 수술해내는 수술칼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8복을 해석하는 연구서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8복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십자가로 끝이 나고 주님이 그걸 알고 의식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3년의 공생애가. 그 십자가를 보고 가는 중에 8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루실 마지막 십자가와 8복이 어떻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8복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얻어지는 복의 8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덟가지 측면을. 십자가 하나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복을.

그래서 오늘 온유함이 어떻게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인간들을 향한 온유함이 아니에요. 옆에 이웃을 향한 온유함이 아니에요. 마누라를 향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겨요? 십자가를 붙잡고 뭐가 죽어요?

내 소원이 죽어야 돼요. 내 기준이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둘러보아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시편 37편 8절에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악만 지어낼 뿐이니라.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뼈가 사라진 증거가 뭐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불만스럽던 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모르실리 없고 주관하지 않으실 리 없고 허용치 않았는데도 일어났을리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증거에요. 이렇게 온유함이 되었어요.

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뼈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 제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에요.

인간을 향한 온유함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내 소원이 죽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가치판단 기준이 죽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호불호의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병철씨와 비교하겠습니까? 정주영씨와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이건희씨나 정몽준씨보다 탁월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새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전부 내 명의로 해주실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여러분 명의로 되는 그런 제3복, 새로운 복 중에 제3복을 2011년에는 꽉꽉 되로 눌러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뼈가 많고 제 마음 안에 거죽이 뻣뻣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 뻣뻣함과 뼈가 다 죽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고 싶으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셔서 땅을 유산으로 받는 복된 2011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0105)